

이재상 박사 형법

전범위 모의고사 + 해설강의

- 출제되는 판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강의
- 총론상의 이론문제도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
- 형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판례 문제를 대비
- 사안의 쟁점에 대한 판례 중심의 풍부한 설명
- 답안지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강의

■ 강의일정 2021년 10/8(금) ~ 10/11(월), 월~토, 총 3 회

교재 : 실전 모의고사 문제·해설(예시답안+실전답안) (제공)

〈시험〉 - 오전 10:00~12:00 (100점 기준)

〈강평〉 - 오후 12:20~13:20

강의진행

● 본 강의의 특징

1. 법원 행정고등고시 2차 형법시험에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법원행시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특히 형법과목에서는 철저하게 판례 쟁점을 위주로 출제됩니다. 출제되는 판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그간 사시나 변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론쟁점은 법행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령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법행 34회 기출)과 같은 이론과 판례에 의한 견해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쟁점판례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없는 판례들도 아주 많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7회 법원행시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같은 총론상의 이론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총론상의 이론문제도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2.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예시답안과 실전답안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① 예시답안에서는 사안의 쟁점에 대한 판례 중심의 풍부한 설명을 합니다. ② 반면에, 실전답안에서는 실제 답안지 분량만큼 일목요연하게 답안지 분량을 줄여서 반드시 들어갈 내용만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쟁점학습과 실전대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답안지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법원행시 2차 시험 답안지는 최소한 2장, 8쪽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도 그 이상 답안지를 작성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안에 써야 할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시험범위는 3회 시험 모두 전범위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진도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시험 후 예시답안을 가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합니다.